

이번엔 기필코... 5무10패 무승 악연 끊는다



광주FC가 스피드를 앞세워 포항전 첫승 사냥에 나선다. 사진은 광주의 '특급 스피드' 엄원상이 5라운드 수원삼성과의 경기에서 드리블하는 모습.

<광주FC 제공>



광주 FC, 내일 홈에서 3년 여만에 '속적' 포항과 일전 10패 중 7패 혼전 끝 아쉬운 패배... 선수들 각오 남달라 경기당 1실점 탄탄한 수비·활발한 득점력 '자신감 상승' 엄원상·김정환 빠른 발로 포항 수비 허점 노리기 전략

K리그2 적응을 끝낸 광주FC가 포항전 무승고리를 끊는다. 광주는 26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포항스틸러스를 상대로 2020 K리그1 9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경기다. 광주는 앞선 전북 원정서 4연승에 실패했다. 경기 종료 5분을 남겨놓고 한교원에게 결승골을 내주면서 0-1 패가 기록됐다. 연승은 있지 못했지만 '선두' 전북을 상대로 밀리지 않는 싸움을 하면서 자신감을 채웠다. 난적을 상대로 K리그1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한 광주는 안방에서 새로운 목표에 도전한다.

포항전 첫 승이 바로 광주의 목표다. K리그 21개 팀 중 광주가 유일하게 승리를 챙기지 못한 팀이 포항이다. 올 시즌을 준비하면서 박진섭 감독과 '주장' 역할이 입을 모아 말한 목표가 포항전 승리이기도 하다. 광주는 포항과의 역대전적에서 5무10패로 열세를 보이고 있다. 10패 중 7패는 혼전의 승부 끝에 기록한 아쉬운 패배들이었다. 특급 공격수 정조국의 광주 데뷔전이었던 2016년 포항과의 개막전도 잇을 수 없는 순간으로 남아 있다. 포항 스틸야드에서 치러진 이 경기에서 정조국

은 멀티골로 화끈한 광주 신고식을 치렀다. 정조국의 활약 속에 2-0 리드를 잡은 광주가 적지에서 첫승을 챙기는 것 같았지만, 경기는 3-3 무승부로 끝났다. 후반 24분 이요프의 퇴장 악재 속 광주가 후반 42·45·47분 연달아 실점하면서, 5분 만에 2-3 역전을 허용했다. 광주는 경기 종료 직전 나온 김정환의 페널티킥으로 들끓던 스틸야드를 침묵에 빠트리면서 극적인 무승부를 기록했다. 광주는 2017년 11월 18일 마지막 대결 이후 952일 만에 포항을 만나 설욕전을 펼치게 됐다. 최근 분위기는 좋다. 광주는 8실점으로 경기당 1실점의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다. 여름, 박정수가 버티고 있는 중원을 중심으로 빠른 측면 스피드와 펠리페의 득점력이 어우러지면서 만만치 않은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특히 부상병들의 복귀로 측면 스피드가 살아나면서 광주의 승점 사냥에도 불이 붙었다. 특급 스피드도 '엄살라'로 통하는 엄원상과 함께 김정환의 순간 속도와 거리도 놀랍다.

앞선 7라운드에서 김정환은 15차례의 스피드 테스트(0.6초 이상의 시속 25.2km를 유지하며 달린 횟수)를 기록하면서 지안학(인천), 정훈성(울산), 안태현(상주)에 이어 4위에 올랐다. 시속 25.2km 이상의 속도로 뛴 거리 역시 338.3m로 전체 4위다. 스피드와 조직력으로 반전을 이룬 광주와 달리 포항은 심상민, 김용환의 입대 뒤 수비가 흔들리는 모습이다. 15득점 12실점 중인 포항은 7라운드 강원전에서 2-0 무실점 승리는 거뒀지만, 앞선 세 경기에서 8실점을 했다. 6라운드 울산전에서는 한 번에 4골도 허용했다. 광주는 포항의 수비 빈틈을 엄원상, 김정환, 윌리안 등 빠른 발로 뚫겠다는 계획이다. 박진섭 감독은 "포항은 한번도 못이긴 팀이기에 선수단의 의지가 남다르다. 지난 전북전에서 보여줬던 투혼과 긍정적인 요소를 그대로 이어가고자 한다"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아~ 10cm... VAR에 날아간 골

토트넘-웨스트햄전, 손흥민 전반 45분 골 비디오 판독 후 오프사이드 판정

8호 도움... 팀은 2-0 승리

시즌 10호 골은 아깝게 다음 기회로 미뤄졌으나, 129일 만의 공격포인트가 손흥민(토트넘)의 견재함을 알렸다. 손흥민이 넉 달 만에 시즌 8호 도움을 올린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이 웨스트햄을 잡고 8경기 만에 승리했다. 손흥민은 24일 열린 웨스트햄과의 2019-2020 프리미어리그(EPL) 31라운드 홈 경기에 선발 출전해 경기 막판 해리 케인의 추가 골을 도와 소속팀의 2-0 승리에 한몫했다. 손흥민은 팀이 1-0으로 앞서던 후반 37분 역습 상황에서 문전으로 쇄도하던 케인을 향해 전진 패스를 건네 골키퍼와 일대일 찬스를 안겼고, 케인은 침착하게 슈팅해 득점했다. 지난 2월 16일 애스턴 빌라와의 정규리그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린 뒤 129일 만에 나온 손흥민의 공격포인트였다. 이로써 손흥민은 시즌 정규리그 공격포인트를 9골 8도움으로 늘렸다. 올 시즌 참가 중인 모든 대회를 통틀어 손흥민은 16골 9도

움을 기록 중이다. '주포'인 케인의 6개월 만의 득점포 가동으로 이어졌기에 손흥민의 이번 도움은 토트넘에 더 값있다. 케인은 지난해 12월 29일 노리치시티전 이후 골맛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1월 2일 사우샘프턴전을 마지막으로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한 바 있다. 앞서 손흥민은 4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릴 찬스도 맞았으나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아쉽게 무산됐다. 손흥민은 0-0이던 전반 45분 지오바니 로셀소의 패스를 골지역 왼쪽에서 잡은 뒤 수비수를 한 명 제치고 강한 오른발 슈팅을 골대 왼쪽 하단에 꽂았다. 손흥민은 주먹을 내지르며 시즌 10호 골 달성을 자축하는 듯했지만, 비디오판독(VAR) 끝에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취소돼 땅을 쳤다. 로셀소가 패스를 할 때 손흥민의 왼쪽 발이 오프사이드 라인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인의 왼발등 폭인 약 10cm를 넘겨 10호 골이 날아가 버린 셈이었다. 제 뒀을 다한 손흥민은 후반 41분 해리 윙크스와 교체됐다. /연합뉴스



KBO 순위 변수 '비'

서스펜디드 등 경우의 수 다양 KIA, 오늘 롯데와 더블헤더

24일 KBO리그 팬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날씨였다. 이날 장맛비가 전국을 적시면서 전국 5개 구장의 경기 진행 여부에 야구팬들의 관심이 쏠렸다. 물론 각 구단도 실시간으로 날씨 영상을 확인하면서 하루 종일 하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강우·강풍·강설·미세먼지 등이 경기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날씨는 야구와 떼어놓을 수 없다. 올해 '날씨'는 KBO리그에 더 민감한 주제다. 코로나 19로 인해 개막이 늦어진 탓에 날씨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 2020시즌은 지난 5월 5일 뒤늦게 대장정을 시작했다. 당초 개막일이었던 3월 28일보다 한 달 여나 늦어진 상황. 도쿄 올림픽이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비워두었던 2주간의 올림픽 휴식기 기간은 벌었지만,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144경기 일정을 모두 소화하기로 하면서 일정 이 뼈대다. 덕분에 '단비' 개념은 사라졌다. 쉽게 우천취소가 결정되던 예전 분위기와는 다르다. 우천취소는 한 번씩 KBO리그에서 논란이 되곤 했다. '비로 하루 쉬었으면'하는 선수단의 바람과 날씨로 인한 입장 수입 감소 등을 우려한 구단들의 계산이 반영돼 쉽게 우천 취소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당연히 팬들의 반발도 불렀다. 하지만 최근 엄격해진 우천취소 결정 분위기에 '비'로 인한 규정까지 더해지면서 '무조건 경기를 한다'가 올 시즌 대세다. 올해는 휴식기(7-8월)를 제외하고는 3연전 중 첫 두 경기와 2연전 첫 경기 취소 시, 더블헤더와 월요일 경기가 열린다. 같은 기준으로 서스펜디드 경기도 시행된다. 5회 정식 경기 성립 이전에 우천 등의 이유로 경기가 중단되면 노게임 선언 대신, 다음 날 서스펜디드 경기를 진행한다. 일단 경기를 시작하고, 시작하면 끝까지 경기를 하는 게 전력 운영에 유리한 상황이 됐다. 엄격해진 기준 탓에 올 시즌 리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KIA는 앞서 한 차례 우천 취소를 경험했다. 지난 6월 18일 전날부터 비가 이어지면서 NC와의 홈경기를 치르지 못했다. 3연전 마지막 경기였던 만큼 더블헤더는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KIA는 25일 시즌 첫 더블헤더를 치르게 됐다. 24일 기움-LG(잠실), 두산-SK(문학), NC-KT(수원)등 수도권 경기들이 일찌감치 취소된 데 이어 상황을 지켜보던 사직에서도 우천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KIA는 25일 오후 3시 더블헤더 1차전을 시작으로 하루 두 경기를 소화한다. 우천취소로 등판할 하루 미루 KIA 이만우와 롯데 스트레일리 가 1차전 선발로 맞대결을 벌인다. 더블헤더는 1·2차전 모두 연장 없이 9회까지 승부를 결정한다. 2차전은 1차전 종료 30분 후 시작된다. 또 더블헤더에 맞춰 기존 정원에 1명 추가 등록이 가능하다. '단비가 아닌 '고민 많은 비'가 KBO리그 순위 싸움의 변수가 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메이저리그 다음달 개막

24일 유력...노사 60경기 합의

파행으로 치달던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가 드디어 올해 정규리그의 막을 올린다. MLB 사무국의 톰 맨프레드 커미셔너는 메이저 리그가 7월 24일 또는 25일(한국시간)에 시작할 예정이라고 24일 발표했다. 맨프레드 커미셔너의 발표에 앞서 MLB 선수노조는 이날 정규리그 개막을 준비하기 위한 7월 2일 팀 훈련 소집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MLB 사무국에 전달했다. 선수노조는 또 야구 개막을 위한 MLB 올 시즌은 MLB 사무국과 구단의 주장대로 팀당 60경기의 초미니 시즌으로 축소돼 치러진다. 이동을 최소화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양대리그 같은 지구 팀끼리만 격돌한다.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에 속한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과 최지민(탬파베이 레이스)은 같은 리그 동부지구는 물론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5개 팀 하구만 정규리그를 벌이는 식이다. MLB 노사는 연봉 지급 문제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예년의 37%에 해당하는 경기만 치르므로 선수들도 원래 정해진 연봉의 37%만 가져간다. 경기 일수로는 이동 일을 포함해 66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